

'남북관계 과속' 美 우려 전달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는 남북화해협력과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들을 듣고 싶고 한·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하지는 논의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시바우, 남북열차 운행 앞두고李통일 긴급 면담

"6자회담 합의와 남북협력은 동전의 양면"

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북측이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측에 쌀 차관 등 지원을 결정하고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정부가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8천만달러의 경공업분야 물자

는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서도 "6자회담과 남북화해 협력 속도에 대해서 한·미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 속도 조율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6자회담 및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은 상호 선순환적으로 발



이재정 통일장관

전하는 게 바람직하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버시바우 대사는 15일 서울-워싱턴포럼 오찬연설에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6자회담) 진전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희장 집단 따돌림 당하는 것 아니냐"

金범무 '보복폭행 사건' 발언 논란

김성호 법무장관이 강연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희장이 우리 사회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김희장 사건을 언급했다.

강연 참석자들이 따르면 김 장관은 "기업 회장이 구속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들이 눈이 찢어졌던 것을 보고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돼 힘센 사람을 데려가 되겠다"는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이런 김희장의 행동을 두고 "사실 부정(欠情)은 기록하다. 정상참작 여지가 조금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보복폭행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필뉴스

현장과 시각

첫월금으로 한턱 낸 그들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 12일 오전부터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사회적 예술기업' 직원들은 입술이 바짝 마싹 탔다. 광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질 '문화 난장'을 위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왔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빗줄기를 그칠줄 몰랐다.

직원들은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다니며 텐트를 치고 무대를 설치했지만 결국 예정된 프로그램의 절반 밖에 선보이지 못했다.

비가 내린 탓에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현장 곳곳에서는 재미있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분필로 도로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 도로 바다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거리 곳곳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DJ쇼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 등 '제멋대로' 축제를 즐기는 이들이 눈에 띄었고 축제는 밤 12시까지 계속됐다.

이날 축제를 준비한 사회적 예술기업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한 단체다. 예술기업은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 광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권을 따내 3년간 총 24억원을 지원받았고 현재 공채로 뽑힌 62명의 직원(30여명 추가 모집중)이 재직중이다. 직원들에게는 기본급 77만원과 4대 보험급 가입, 주 5일제 근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 예술기업은 이례에서도 알 수 있듯, 예술가들의 '개인 작업' 보다는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무게 중심을 둔다. 이번 축제 역시 첫 월급을 탄 직원들이 시민들을 초대할 행사였다.

아직 평가가 이르긴 하지만 지금 사회적 예술기업의 출현이 반가운 건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화적 기운들이 넘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관 주도의 천원일률적 이벤트와 지원금이 의지하는 일부 단체들의 연례 행사에 식상한 이들에게 문화제길라라의 특색 있는 활동은 자극이 되고 있다.

또 하나, 문화의 힘이 '관계 맺기'를 통한 확산에서 파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술기업의 출발은 일단 성공적이다.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작업하기를 원하는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청은 최근 비어 있는 소매동 위생매립장 부지를 일대 3년간 사회적 예술기업에 임대,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사회적 예술기업은 이곳에 예술가 마을을 조성,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마다 비록시장을 열었던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 역시 올 10월에 이들과 함께 행사를 한다.

행사 후 직원 가운데 절반은 독감에 걸렸다. 하지만 '문화, 생태, 역사가 어우러진 광주'를 꿈꾸는 그들은 이날 현장에서 나무껍질 플래카드에 적힌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모토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mekim@kwangju.co.kr

공공기관 감사 '이과수 혈세 외유' 해임 촉구·고발... 파문 확산

감사들 서둘러 귀국길

공기업·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혁신 세미나' 명목으로 남미 이과수 폭포로 외유를 떠난 것과 관련, 16일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 방침을 밝히고 공공노조도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요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사실관계 파악 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의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 방침을 시사했다. 외유를 떠난 감사들은 급거 귀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16일 검찰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재근 투명사회팀장은 "공기업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사실상 관공으로 보이는 출장을 간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정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포함한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정치인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진임하지 못하게끔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감사단을 만들고 입법청원운동까지 하기로 했다.

활반단의 홍정식 단장은 "이번에 외유성 출장을 간 감사들에 대해 내주 초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노총은 "공공기관의 운영 혁신 상황을 점검해야 할 감사들이 정작 본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눈감았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규율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감사들의 해임 의결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의 주요외제로 삼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들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관련자의 과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감독주체인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1명의 공기업 감사들은 철레의 국영방송국(15일), 브라질의 석유공사(17일), 아르헨티나의 수자원공사(21일) 등을 방문하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공기관 혁신 자체세미나(20일)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14일 출국했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적인 폭포로 유명한 이과수에 2박3일간 머무는 등 '문화 탐방' 일정을 잡아놓은 데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남미를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외유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파문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친일예술인을 고발한다

(사)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개최하고 있는 '친일예술인 작품 전시회-같은 시대 다른 삶'전을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이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 3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GDP 세계 12위... 브라질에 밀려

2005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1인당 소득은 49위로 1단계 상승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로 1계단 하락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49위로 1단계 상승했다.

16일 한국은행이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를 요약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명목 GDP는 7천913억달

러로 비교대상 184개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2004년에는 한국이 11위를 기록했으나 같은해 14위였던 브라질이 2005년 11위로 상승하면서 뒤로 밀렸다.

GDP 세계 순위는 1위 미국(12조4천165억달러), 2위 일본(4조5천340억달러), 3위 독일(2조7천949억달러), 4위 중국(2

조2천343억달러), 5위 영국(2조1천266억달러) 등이다.

한국의 1인당 GNI는 1만5천840달러로 비교대상 208개국 가운데 49위로 2004년의 50위에서 1계단 상승했다. 1인당 GNI 세계 1위는 룩셈부르크, 2위는 노르웨이로 6만890달러, 3위 스위스는 5만5천320달러였다.

연필뉴스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1 호점 : 금남지하상가 O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2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3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광복 히트 일본 구제 명품
-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 ◎기분좋은 변화 개성연출
- ◎Nippon Style

- ◎희망의 품격
- ◎부담없는 가격
- ◎편안한 쇼핑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화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O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겐도



프린세스



슈가문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이태리 디바니 DIVANI 소파를 독점수입 판매합니다.

- ◎ 등받이 각도 조절, 바닥부분 리모콘으로 침대기능
- ◎ 4가지 모델과 이태리만의 칼라 30% 세일 판매
- ◎ 홍스페이스는 호남 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입니다.

1.2층 : 명품가구 3~5층 : 엔터가구 지하 : 50% 세일가구

www.홍스페이스.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역)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